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모든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 책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니라. 누가 그를 알겠는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을 검토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의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 대해 “당신은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임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속임당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시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하나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동안 읽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념으로 인해 그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주제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생각은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대 의견 중 일부를 다루고 싶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많은 사람들, 아마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일부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까 봐 그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 어떤 자료도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영원한 죄니라.” 마가복음 3:28, 29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에 제시된 구절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30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더러운 영(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압니다(행 2:22).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탄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성경과 일치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요 16:8)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성령의 역사를 자의로 사탄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후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함 - 행 5:3, 4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두려움은 성령의 “신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요 본문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발 값 얼마를 떼어 놓았느냐? ...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3, 4

많은 사람들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비교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비록 일리가 있다고는 할지라도 사도행전의 저자가 가르친 진리나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0장에서 그들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신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모든 양 떼를 돌보라.” 사도행전 20:28

사도행전의 저자와 위 구절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분이심을 확증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되는 법을 압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구절에서 “성령”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서나 “성령”이라는 용어를 읽을 때 저자는 우리가 자신과 동일한 이해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피.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베드로에게 폭로하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분과 예수님 둘 다였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원칙은 요한계시록 1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Apoc.) 1:1.

순서를 참고하세요:

- (1) 하나님 - 계시를 주시는 분:
- (둘) 예수 -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 (3) 종들(행 5장의 경우 그 종은 베드로였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그 종(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성령)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성령이라는 용어는 단지 사도행전의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가 이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오늘날에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렸느니라. 그러나 그들 중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 휘장은 그들에게서 벗겨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고후 3:14-17

바울은 유대인 중 누구든지 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그에게서 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주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을 확증합니다. 텍스트는 명확합니다.

## 성령의 위로자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심을 믿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이 진리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여자. 1:11, 12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모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위로자”라고 부르시며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 1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점에 유의하십시오.

“너희가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7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혜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위의 문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혜사로 다시 오실 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께서 그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19

성서에서는 예수께서 두 번째로 땅에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계시 1:7); 여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혜사의 오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볼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신자들만이 그분을 영접할 때 보혜사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3인칭 단수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나”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참조하세요.

“산에서 내려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환상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9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40

“그들이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에 두루 걸쳐 성경 전체에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 루크. 24:15, 16, 26, 27

위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인자”와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그 자신; 그러나 그분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방식입니다. 보혜사에 관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람(따라서 "기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임을 압니다.

보혜사에 대해 더 많이 알면 편리합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예수일 것입니까, 아니면 아닐 것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위로자...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 17

보혜사는 어디에 계실까요? 제자들 안에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늘에 계셔서 인간의 제사장이자 중보자로 활동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의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주께서 주신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자시니라 세워진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8:1,2; 9:24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늘에 계실 것이지만, 성령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보혜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바울이 이해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느니라” 갈. 4:6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ROM. 8:9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이기적인 뜻을 굴복시키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의 마음 안에 받아들임으로써였습니다. 2:20.

“영”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대 이교 종교와 강신술에서는 영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의 신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영”으로 번역된 단어는 “호흡”,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1, 2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과 같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령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호흡의 본질(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며(요 16:8), 이 호흡이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행 16:7),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고전 7:7-10), 우리의 악한 욕망을 정복하시며(갈 5:16),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갈 5:22, 23). 즉, 성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줍니다.

##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위로의 영이시며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영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를 읽습니다.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9, 11

위의 본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다른 영일까요, 아니면 둘 다 공유하는 동일한 영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26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에게서 나오시느니라” 요한복음 15:26

예수님께서 보내실 위로의 영, 곧 그의 영은 아버지께서 오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로하는 영도 하나님의 영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32, 33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으셨고, 예수님은 그 영을 호흡으로 제자들에게 부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라...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도 내 것이니라” 요한복음 17:1, 10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지신 영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성경이 오직 한 영만 계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에베소서 4:4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 평등이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 그리스도의 영(단 1개의 영).

성령은 인격자인가?

제자들은 성령이 인격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해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32, 33

위의 구절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격체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부어진”과 “이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 기름, 우유 등을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흘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부어진 성령은 인격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것처럼 어떻게 한 사람이 120명에게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는 또한 성령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나요?

보자: 누군가가 당신을 언급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라는 단어는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만 결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 “이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인격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신성한 사람이었다면 사도는 그녀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상징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요한복음 7:37-39), 기름(숙 4:2-6) - 항상 형태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결코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개인적 속성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탄식하고, 중재하고, 슬퍼하고,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여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비교를 잘 이해하고 성경이 인간의 영을 언급하는 방식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과 관련된 개인적 속성을 나타내는 구절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1

우리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정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구절 뒤에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것이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그를 가르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16.

실제로 위의 텍스트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바꾸면 텍스트가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그 자신의 생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1

이 본문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본문 자체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께 적용될 때 그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1

사람의 일도 사람의 생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영”, 즉 하나님의 마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섯 구절 뒤에 저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랐던 것임을 확증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그를 가르치실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2:16

“영”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이 경우에는 “정신”을 의미함)로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구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

사례:

“... 아합이 불쾌하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을 이토록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빵도 먹지 아니하시나이까?” 열왕기상 21:5



아합 왕은 혐오감을 느꼈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네 심령이 근심한다”는 표현은 그가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요한은 환상 중에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영”에 감동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시더라” Apoc. 1:10, 11

그리고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생각)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25

우리는 성서에서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는 데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을 언급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인간의 탓으로 돌리는 여러 구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를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잘 기도하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14

바울은 그의 마음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의 영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행동이 구절에서 바울의 “영”에 기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은 실제로 영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바울의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위로에 더해, 여러분 모두가 그의 정신을 재창조한 디도의 만족으로 인해 더욱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7:13

비록 디도의 '영'이 재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디도 자신이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유사한 다른 본문을 분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개인적인 행동과 연결된 “영”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때 그 행동은 영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정신"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예를 하나 인용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이년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영은 괴로워했고, 그의 잠은 사라졌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다니엘 2:1, 3

위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의 영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본문에서 “영”에 속한 행위는 영의 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 개인의 행동을 하나님의 “영”에 돌리는 구절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에 따른 개인적인 행동을 제시하면서 사람 자신의 행동을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기인한 개인적 속성으로, 하나님과 예수께서 행하신 행위를 가리킨다. 몇 가지 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로마서 8:26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위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법칙에 따르면 그 행위는 영을 소유한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위 구절(7절 앞)의 문맥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셨으나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34

비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롬 1:1). 8:26 =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롬 8:26) 8:34.

- 나는 애완 동물입니다. 1: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 애완동물. 1:2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용어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법칙을 따르고 그 행위를 성령의 소유자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성경과 조화로운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에 묘사된 “거룩하게 하는” 행위는 예수께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와 일치합니다 -

바라보다: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거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분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 2:11

위의 본문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언급된 “거룩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4

위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주신 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성경적 규칙을 적용하면, 본문에서 성령에 기인한 은사를 주는 행위는 성령의 소유자가 수행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이 경우 오순절에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이 선언하는 성경의 계시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수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7, 8

누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엡. 4:7, 8

- 에베소서 4:30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30

위의 본문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영”이 괴로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에 따르면, 슬픔의 행위는 성령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사도행전 5:3, 4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발 값 얼마를 떼어 놓았느냐? ...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3, 4

비록 행동을 “영”이라는 단어에 구체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는 이전 텍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법칙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성령의 소유자인 이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와 조화를 이룹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모욕하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경계하고 분명히 증거한 것과 같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라.” 나 테스. 4:6, 8

아나니아는 자신이 판 밭의 가치 중 일부를 주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믿는 형제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속이지 않으려고 주님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위의 본문은 이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아나니아와 다른 형제들을 속여 밭 판 값의 일부를 주지 않고 속이려 했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예가 성경적 규칙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말하기, 슬퍼하기 등과 같이 개인적인 행동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에 돌리는 다른 모든 본문은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한 성경적 규칙을 적용하여 쉽게 설명됩니다. 행동은 항상 성령의 소유자인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마태복음 28:19의 세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이 장의 목적은 단순히 위의 인용문을 성령과 관련하여 말하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세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의 신뢰성이나 권위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인용문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 1- 마태복음 28:19은 성령이 인격임을 증명합니까?

우리는 그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성령이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는 “인격”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명령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인격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의 이름으로 행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법의 이름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예를 인용합니다. 법은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체포”하는 행위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체포한다고 해서 율법이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듯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성령이 인격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 - 마태복음 28:19은 성령이 하나님임을 증명합니까?

이 구절은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조차 명확한 구절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명령한다는 사실이 그가 인격체임을 증명하는 것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3 - 이 구절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세 분 사이의 동등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석해 보면, 세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28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크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마 28:19에서 아버지와 함께 언급된 사실이 그분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만들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는 영이 있습니까? 만약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 누군가에게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면, 이 기준을 사용하면 하늘의 선택된 모든 천사들은 성경에 함께 언급된 것처럼 그들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보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교훈을 지키고 막지 말고 아무 일에도 지 편견을 갖지 말라.” 디모데전서 5:21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 즉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사람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과 마태복음 28:19의 본문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그들과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 ”.

- 고린도후서 13: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13 (일부 성경에서는 14)

이전 섹션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분석해 보면, 같은 구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인격이심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 그러므로 위 구절(고전 13:13)에 예수, 하나님, 성령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성령이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위격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신. 그리고 이 같은 기준으로 세 이름이 나타나는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의 구절에는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는 주의 깊게 읽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령과의 교통”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교통한다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한 사람과 “함께”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령의 교통을 말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어 같은 뜻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바라는 바였습니다.

성령의 교통 - 그들은 같은 성령을 가졌으므로 같은 성향과 같은 의견으로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4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오히려 같은 정신적 성향 과 같은 의견 으로 완전히 연합하십시오 .” 고린도전서 1:10

### 히브리어 단어 "에가드"와 "엘로힘"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단어 “에가드”와 “엘로힘”이 하나님이 한 위격 이상임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성령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확인하려면 정통 유대인에게 부모의 종교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는 에가와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에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을 통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간에는 상당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르투갈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분석할 때, 단순히 포르투갈어의 문법 규칙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어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인 유사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언어의 특정 단어 나 문장을 분석할 때 포르투갈어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나 해석 규칙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는 포르투갈어로 "one"이라는 단어와 함께 발생하며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echad"로 번역됩니다. 포르투갈어에서 "one"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의미는 "echad"로 읽는 히브리어의 해당 단어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히브리어-포르투갈어 사전(사전)에 나오는 에카드라는 단어의 유일한 의미는 "ONE"입니다(참조: [http://www.blueletterbible.org/tmp\\_dir/words/2/1164725880-7020.html](http://www.blueletterbible.org/tmp_dir/words/2/1164725880-7020.html)).

---

포르투갈어에서는 "하나"라는 단어가 항상 독특한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웨이터 한 명, 컴퓨터 한 대, 주유소 직원 한 명, 친구 한 명.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O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1개의 개체 또는 1명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호의, 하나의 애정 등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와 관련하여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우리 언어에서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항상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John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가 두세 대의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João에게는 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것입니다. 포르투갈어로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고전 8:6의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포르투갈어 성경에 나와 있으며, 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우리(이 경우에는 본문의 저자인 바울과 그와 한마음으로 이해한 사도들)에게는 한 하나님(한 분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한 분의 인격체)이 계십니다. , 아버지(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텍스트는 결정적이며 배타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결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제시된 분, 즉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배타적입니다.

히브리어 "에카드"는 포르투갈어의 "하나"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의미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를 의미하며, 결코 "둘"이나 "셋"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952번 나오며, 매번 같은 단어로 번역되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경우에 “하나”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텍스트의 문맥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회의의 경우 정확히 [http://www.blueletterbible.org/tmp\\_dir/words/2/1164725880-7020.html](http://www.blueletterbible.org/tmp_dir/words/2/1164725880-7020.html)).

이것.

보다:

Gen의 텍스트. 3:22에는 ECHAD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삼위일체론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ECHAD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한 분 이상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사람(에하드) 같이 되었으니...

\*(위 구절에서 "ONE"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ECHAD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isse"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사용되며,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싶을 때 복수형 "disseram"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제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위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의 천사들조차도 사탄이 쫓겨나기 전에 사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미 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하나”라는 표현에는 모든 천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천사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알기 시작한 것처럼 천사들도 이미 악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잘 알려진 신명기의 구절을 읽어보자. 6:4: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카드)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신명기 6:4(원문에 충실한 번역)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주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분임을 이해합니다.

해석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또 다른 단어는 포르투갈어로 "LORD"로 번역되는 "ELOHIM"이라고 읽는 히브리어 4중그람마톤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예를 인용합니다:

사람:

엑소.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바로의 신(엘로힘)으로 세웠느니라”

2명 이상:

시편 8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엘로힘)이라..."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때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한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ELOHIM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야 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절의 맥락 때문입니다.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두 텍스트를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엑소.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신(엘로힘)으로 세웠으니 파라오에 대해서."

위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수 인칭 대명사 "TE"를 사용하여 한 사람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ELOHIM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신(ELOHIM)으로 삼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경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모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두 번째 텍스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편 8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엘로힘)이라..."

위 구절에서 누군가는 복수형 개인 대명사 "YOU"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그들을 ELOHIM이라고 부릅니다. "YOU는 신(ELOHIM)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ELOHIM이라는 단어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복수로 사용되었는지 정의한 것은 본문의 문맥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복수로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맥입니다. 이 방법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가 제시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엘로힘(ELOHIM)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234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분석해 보면 엘로힘(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항상 단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여기에 몇 가지 예를 인용합니다.

\*(모두 검색하려면 [http://www.blueletterbible.org/tmp\\_dir/words/g/1164729137-9926.html](http://www.blueletterbible.org/tmp_dir/words/g/1164729137-9926.html)을 참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이 구절은 창조되었다가 단수로 쓰여 있고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한 사람, 즉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일 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엘로힘)가 호렘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1:6 (구절에서 하나님은 단수형(한 사람)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말씀하셨다"는 것은 복수형(한 사람 이상)의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위의 구절은 단수형으로 and "SAID"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and SAID"가 아닌 단 한 분, 하나님(ELOHIM)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표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엘로힘이 한 사람 이상을 의미했다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ELOHIM)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제시하는 구약성서의 20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을 한 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인트 세인트 세인트

“그리고 그들이 서로 소리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사야서 6:3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와 안쪽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선포하노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Apoc. 4:8

위의 두 구절은 비록 성령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권세와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신 최고의 존재 세 분이 계시다는 증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구절에서 다시 발췌하여 아래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단어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이시라” Apoc. 4:8

위의 구절에서 강조 표시된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는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단수형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이상을 언급할 때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단어 사용법을 알면서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언급하기를 원하셨다면

위에서는 세 위격이 있고 세 분 모두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썼을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 이사야 6: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 하신 이시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 Apoc . 4:8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지 않죠? 그렇다면 단수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위의 각 구절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언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 “성도”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는 사실이 그 구절들이 한 사람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그 안에 포함된 인격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반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엮고 엮고 엮으리니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 마땅히 받을 사람이 오기까지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7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위 구절에 “후퇴”라는 단어를 세 번 기록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같은 단어를 세 번 사용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반복을 통해서도 같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구절에서 언급된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완전히 확신하여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2 부

제1장 “신”은 몇 명이나 있는가?

당신이 친구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대화를 중단하고 "탁자 위에 있는 그 선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즉시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물은 몇 명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을 위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수 대명사 "MIM"은 사람 수(1명)를 정의합니다. 선물이 두 명 이상을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선택은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 출애굽기. 20:3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에게 순종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된 대명사 - “MIM”(우리가 아님)에 유의하세요. 이 계명에서 순종을 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읽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1, 3

한 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첫 계명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첫 계명을 범함으로써 두세 사람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지라도 두세 사람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변형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을 구성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반면, 계명은 하나님이 한 위격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의견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는 자신이 계명 중 하나를 공개적으로 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ROM. 14:10

성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절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지만 계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쓴 것입니다. 선언하다:

“시나이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의 손으로 쓰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모세가 돌이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양면에 기록된 판들... 그 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더라. 그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출 31:18)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의 진위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의 진위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왜곡되지 않도록 친히 손가락으로 쓰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인지에 관해, 반대 증거가 제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증언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 자신이 있고 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라. 나는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처를 입히고 치유합니다. 내 손에서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39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 이사야 45:21

위의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나”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한 인격체로 언급하셨습니다. 남자인 우리가 사용법을 알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한 사람(우리 인격)을 지칭할 때 “나”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를 3시 30분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잘 지내요.” 야고보서 2:19

## 2장 하나님은 누구신가?

### 2.1 - 계명

계명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신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으니 ” 요한복음 15:10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첫 계명이 분명합니다. 20:3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버지는 자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곧 아버지입니다.

### 2.2 - 예수의 증언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니라” 요한복음 14:6

이는 예수님께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확실히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1, 3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1, 3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UNIQUE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 - 요한복음 14:28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보다 크신 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니라”. 요한복음 14:23, 28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십니다.

-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 요한복음 10:30

한번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29-36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더 큼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돌을 집어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많은 선한 일을 보여 주셨다. 누구 때문에 나한테 돌을 던진 거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 때문이로다 당신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음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성경은 틀림이 없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0:29-36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줄로 알았으나 예수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진실로 설명하셨느니라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래 요약된 대화를 참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자신을 신으로 만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요한 복음 10:29-36

- 예수의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그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27:46을 보십시오: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되신 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의 아버지를 그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20:17: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17.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 2.3 - 사도 교회의 증언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한 무리의 사람들, 즉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나온 진리를 보존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맡은 그분의 교회를 남겨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11, 12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11, 12

사도들은 예수에게서 배운 것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예수에게서 배운 내용, 즉 사도 교회의 신앙을 선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_\_\_\_\_

고린도전서 8:5, 6

바울은 또한 자신의 서신에서 여러 번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1; 4:6; 딤후 2:5; 이모. 2:19; ROM. 1:7; 고린도전서 1:3; 고린도후서 1:2; 여자. 1:3, 4; 에프. 1:2; 필. 1:2; 골로새 1:2; 나 테스. 1:1; II Thes. 1:2.

사도 시대 교회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즉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요한이서 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3

사도 베드로는 위의 구절들을 기록한 바울과 요한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 베드로전서 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 베드로전서 1:3

## 2.4 - 구약(구약)의 증언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서 가르치신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가르친 것, 즉 신이 몇 명이며 누가 누구인지에 관해 가르친 것 사이의 조화를 보았습니다.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계명에 따라), 예수, 사도 교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도 성경은 오직 한 분뿐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 아버지 이사야서 45:21, 22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고 나 외에는 의로운 하나님과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21, 22

동일한 진리가 구약성서의 다른 여러 구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를 대비해 일부 참고 자료를 인용합니다: Exo. 20:3; 신명기 4:35, 39; 5:6, 7; 6:4; 이사. 44:6, 8; 45:18, 21, 22; 46:9.

또한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항상 단수 참조를 사용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 1:26(단수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라면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단순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 2.5 - 잘못 번역된 성경 인용문

성경에는 원본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일부 텍스트가 있고 잘못 해석된 일부 텍스트가 있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원본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와 사도들이 계시한 계명,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아버지라는 진리와 반대되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본문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5:7; 로마서 9:5; 디도서 2:13; 유다서 4; 요한복음 1:1; 요한복음 1:18; 히브리서 1:8.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의 각 텍스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요한일서 5:7: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라는 구절에 나오는 문구는 성경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서 대괄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이 기호: [ \_ \_ ]).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에 대한 주석은 그 본문이 원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라보다:

“vv. 7-8 은 Vulg.de에 고대 그리스 사본, 고대 역본 및 Vulg.의 최고의 사본에 없는 절개(여기서 아래 괄호 안에)가 추가되어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본문에 소개된 가장자리 광택으로 보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시니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셋이 한 분이시요 땅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셋은 하나다.” 예루살렘 성서, 3판, 2004년, 1면 2132, 2133 (요한일서 5:7 각주 주석 - 강조 추가)

위의 문장을 추가하지 않고 가장 충실한 원본 버전에 따라 텍스트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한 뜻으로 연합하셨느니라” 요한일서 5:7

원본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사람이 추가한 요한일서 5장 7절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이라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추가된 본문 없이 그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이 삼위일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물과 피를 가리킨다.

- 로마서 9:5:

미국 개정 개정판(Revised American Version)과 같은 일부 성경 번역판에서는 그 본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고전 8:6)고 기록한 바울이 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년 전에 고린도인들에게 쓴 내용과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본문이 분명하다. 9장 5절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암시하는 번역판에서 잘못 번역되었다.

다음은 개정판과 업데이트된 미국판을 포함하여 일부 성경 번역본의 각주에 있는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입니다.

"저희는 조상들이요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강림하시느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로마서 9:5



- 디도서 2:13:

이 구절에도 번역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경에서 읽는 방식으로 보면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쓴 다른 편지들에 반대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고전 8:6; 엡 4:6; 딤후 2:5). ) . 아래는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며,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룹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13

- 요한복음 1:18: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또 다른 성구는 요한복음 1:18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성경 번역판에서는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대 독자들에게 예수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번역자들의 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을 오도합니다. 아래에 우리는 성경의 이전 버전에 따라 원본에 더 충실한 텍스트를 제시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를 나타내신 이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이시니라” 요한 복음 1:18

- 유다서 4:

번역 문제가 있는 또 다른 본문은 유다서 4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에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최근의 번역판에 나와 있듯이, 이 성구는 예수께서 유일한 주권자이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15, 16을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눈으로 보지 못한 자”(즉 아버지 하나님)가 유일한 주권자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는 불멸의 유일하신 이시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이시니, 그는 이제까지 아무도 본 일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이니라.” 디모데전서 6:15, 16

위 본문에서 “유일한 주권자”로 언급된 “본래 아무라도 본 적이 없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분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 말씀 자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 곧 독생자를 본 사람이 없되... 그를 나타내신 이는 곧 하나님이니라”(요한복음 1:18).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을 별개의 두 존재로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바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유다는 동일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바울이 기록한 내용과 결코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만일 예수께서 유일한 주권자이셨다면 그분이 아버지의 주권자이시겠습니까? 땅에 순종하는 아들 중에 아버지를 종으로 모시는 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물의 자연 질서에 위배되므로 우리 인간에게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도 위배됩니다. 이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위에 계시고 아들 아래 계시지 않음을 계시합니다.

“한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시니라” 에베소서 4:6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셨느니라” (고전 15:28)

다음은 하나님을 제시하는 유다서 4장의 가장 충실한 번역입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주권자로서 성경의 계시와 사물의 자연 질서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이 판결을 받은 자들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곧 유일하신 주권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라.”

유다서 4

- 요한복음 1:1:

번역에 문제가 있는 또 다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어 보도록 권유합니다. 본문을 읽는 방식에 따르면, 적어도 태초에,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첫 계명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한 것보다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요한 복음 17:3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의 가장 충실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  
요한 복음 1:1 (원문에 충실한 번역)

본문이 말하는 것은 태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있어? 단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자녀를 지칭하기 위해 “낳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5:3의 예를 참조하세요.

“아담은 일백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5장 3 절

일곱은 문자 그대로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의 결합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셋을 문자 그대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묘사하기 위해 “태어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5장 전체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족보(부모와 자녀의 이름에 대한 기록)를 언급하는 다른 모든 구절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낳다”는 문자 그대로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셋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여전히 “아담의 형상”을 따른, “그의 형상”을 따른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아들에 대한 성서의 묘사입니다. 성경은 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문자적이고 합법적인 아들, 그의 아버지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5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는가?” 히브리서 1:5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슴 높이에 있는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읽어보자.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7:8).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합법적인 아들이 여기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만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37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8:37

먼저 그분은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천국에서 태어났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 히브리서 1:8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 따르면, 본문은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원래 고린도인들과 디모데전서(딤후 2:5), 에베소서(엡 4:6)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라”라고 쓴 바울이 쓴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신성한 영감을 받아 글을 썼는데, 그가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과 모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시편 4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6:5을 읽고 히브리서 1:8의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텍스트를 원본에 대한 가장 충실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주의 것이로다” 시편 45:6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계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 자체와 모순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바벨론”으로 불리는 교황청(가톨릭 교회)이 대부분의 성경 번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혼란을 뜻하며, 교황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일, 즉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카톨릭 신앙의 중심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믿게 만드는 혼란을 정확히 묘사하기 좋은 이름이다. 그러나 이 교리는 비성경적이다. 안식일, 성소 등과 같은 성경적 교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이름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거나 권력이나 계층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그분을 모욕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축소시키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니라.” 빌립보서 2:5-11

위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멸망시켜 종의 형체를 가지사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라 .”

본문은 예수님의 굴욕의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 우주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다가 자기를 소멸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이 되셨다.

2 -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3 -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난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희생이 이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우주에서 가장 비열한 곳에 이르고 죄와 어둠에 오염되어 자신을 우주에서 도덕적 가치가 가장 낮은 존재, 즉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이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굴욕적인 처형 방식으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희생을 보고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9

위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은 이전 구절들(하늘 궁정을 떠나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제시된 이유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이라.” 고린도전서 1:24; 2:2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과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를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높이 지 않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그분을 높이신다면, 비록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의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시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전, 도중, 후에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 태초에 -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에서는 우주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의 시작에 예수님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의 가장 충실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1 (그리스어 원문에 대한 충실한 번역)

본문이 말하는 것은 태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있어? 단순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였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요한복음 10:36).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지 “아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자연적이고 합법적인 자녀를 지칭하기 위해 “낳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5:3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아담은 일백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5장 3 절

일곱은 문자 그대로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의 결합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셋을 문자 그대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묘사하기 위해 “태어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5장 전체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족보(부모와 자녀의 이름에 대한 기록)를 언급하는 다른 모든 구절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낳다”는 문자 그대로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셋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여전히 “아담의 형상”을 따른, “그의 형상”을 따른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아들에 대한 성서의 묘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이시며 그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낳다”라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는가?” 히브리서 1:5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슴 높이에 있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요한복음 17:8).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즉, 합법적인 아들이 여기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만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37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8:37

먼저 그분은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천국에서 태어났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함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 창조된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느니라.” 로마서 1:20

위의 구절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 신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창조된 작품을 통해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비유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과 성품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인간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살과 피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자녀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위에서 읽은 로마서 1장 20절에 제안된 비교를 사용하여 우리는 인간 자녀가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살과 뼈)을 가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성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지닌 몸이시며, 우리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5, 6

위 본문에서 “형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때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육체적 형상을 가지셨다는 사실,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몸이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아버지보다 어리다

우리는 인간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의 아버지보다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에 관해 그녀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하여: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시편 90:2

위의 본문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아들 소개: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으로 보기에 너무 작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에, 영원부터니라.” 미가 5:2

위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영원의 날에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에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90:2

아들: “그의 기원은... 영원으로부터” Miq. 5:2

아버지가 아들보다 앞서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은 영원에서 탄생하셨습니다.

- 그의 아버지와 같은 성격

인간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성격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성격 경향을 물려받습니다. 비록 인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성품을 전달하는 데 불안 전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아들에게 성품을 전달하는 데 불안전함이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입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이는 영광의 광채 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1-3

위의 본문에 사용된 "정확한 표현"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확하다'는 말은 '완전히 충실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이 그 인격(또는 존재)의 완벽하고 신실한 표현, 재생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것 여기에는 육체적 형태와 성격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들의 품성은 아버지의 품성과 동등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들의 품성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하며, 그와 같은 높이와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범해진 율법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온 우주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으시고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 상속인 아들



모든 인간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1:2

문자 그대로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인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동등하고 동일하게 영원하다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동일한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아버지 이름의 상속자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바 주니어(Silva Júnior) 씨가 아버지인 실바 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조물의 자연적 질서가 신격까지도 계시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 것처럼(롬 1:20),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성경? 보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이니라”

히브리서 1:1, 2, 4

위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구에서는 예수께서 물려 받은 이름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 보라,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켜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를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는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이다.” 출애굽기 20:1, 20, 21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분의 천사로 언급하시며 모세에게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인 “하나님”을 상속받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독자가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제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제시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만왕의 왕이 되리라 평화;” 이사야 9:6

위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위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분석한 이사야 9장 6절의 경우와 동일하다.

- 땅 위에서 - 사람의 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태어날 몸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5

영매술은 실체가 육체를 취할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가셔서 하나 안에 두 몸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형에서와 같이 때때로 나타나는 비활성 자(신성한 자). 이 개념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심령론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을 위해 몸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소유했던 신의 몸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는 자기를 죽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5-7 (Almeida Rev. and Corrected Translation)

전멸하다(annihilate)라는 말은 '멸망시키다, 아무것도 없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위 구절에서 “자신을 멸절시키셨다”는 말은 아버지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이 멸망되어 무(無)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과 같은 몸을 가진 아들을 영원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멸망되어 무(無)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몸을 반영하는 몸을 가진 아들을 다시는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구절은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음을 보여 줍니다. 성육신 이후부터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만 가지셨고 문자 그대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분의 육체적인 몸을 반영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진 기원에 의해(그분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인류를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불리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두 구절만 인용합니다.

“이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절하며 가로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마태복음 14:3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였 느니라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곧 인자를 보리라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시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라.” 마태복음 26:64

본래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의해 태어나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존재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해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다시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인자로서 두 번째로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곧 보리라” 마태복음 26:64

우리는 예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인자이실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을 봅니다.

- 남자로서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갖지 못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그분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일종의 “하나님-사람”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 요한복음 5:30

그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사도행전의 구절을 읽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는 너희 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라”(행 2:22)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10

위의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처럼 육체적으로 제한된 인간이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자비의 일을 행할 수 있는지도요. 만일 그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가 땅에 계실 때 그를 강하게 하신 아버지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도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처럼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 부활 후 - 살과 뼈가 있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계속해서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몸을 가지고 존재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겁에 질려 자신들이 영을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나요?

내 손과 발을 보십시오. 나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누가복음 24:36-40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오늘날 하늘에서 사람이시며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 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말씀대로 그분은 사람이시며, 사람으로서 오늘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자 - 형제들 - 히브리어 주석을 보라. 2:11 및 17: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 그가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1, 17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형제,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골로새서 2:8, 9

위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오늘날 하늘에 계신 사람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한 것과 모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위의 본문을 통해서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주어진 계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본문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절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에베소서 3:18, 19

---

위의 구절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토다(toda)는 토도(todo)의 여성형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완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으로부터 취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완전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본문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거룩함을 취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그분이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거룩함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확인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훼손하지 않고도 골로새서 2장 8, 9절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그분의 거룩함의 충만함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8, 9절의 문맥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바울이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라.  
아무도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얽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니라.” 골로새서 2:6-9

위 구절에서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권고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골로새서 2:6, 7

본문에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올무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고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8

그런 다음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안에는 거룩함의 충만함이 거하느니라(말씀의 뜻은 본문의 신성):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9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만 거룩함의 표준에 따라 우리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온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느니라.” 골로새서 2:10

“신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 “신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바울은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한 가장 큰 거짓말은 뱀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 즉 그녀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창 3:5 참조). 이건 불가능 해.

### 제3장 세례/성결

- 마태복음 28:19의 세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들과 성령의 성령”

우리 시대의 성경에 제시된 이 본문은 하나님, 즉 아버지가 한 분이심을 증명하지 못하지만(이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증거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 28:19에 나오는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는 ...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에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 누가 복음 24:44-47

이제 해결해야 할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세 사람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신 반면, 누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명령 중 어느 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읽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 그래서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의 삼천 영혼이 더해졌습니다. ...  
모든 영혼이 두려워하였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  
다.” 사도행전 2:38, 41, 43.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6; 4:10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빌립을 저희가 믿고 남자 여자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12

“그러나 바울은 괴로워하며 돌아 서서 그 영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녀에게서 나오십시오. 곧 나가니라”(행 16:18).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심 이니라”(빌 2:10)

어떤 명령이 이행되었는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나 기적이나 설교가 행해진 사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라는 누가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합니다. 위의 마지막 본문은 모든 무릎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19은 우리가 현대 성경에서 읽을 때 그 본문이 성경 전체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당시에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이 유대인과 사도들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 주장은 무너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아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느냐? 이르되 요한의 세례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리스도.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1-6

위의 구절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에베소의 몇몇 신자들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한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만일 그들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의 존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은 더 나아가 이 신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알려 줍니다. 여기서 하늘 자체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만 인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이 이름이 유대인들과 논쟁거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다른 세례(이 경우에는 요한의 세례)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야 가능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 외에는 세례를 통해서는 성령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명령하셨음이 분명하며, 현대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본문에는 번역상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누가복음에 제시된 예수의 명령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이사라의 유세비오의 고대 역본은 마태복음 28:19의 본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포함된 진리와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9**

마태복음 28:19의 본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원어를 알 필요도 없고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됩니다. 위에 제시된 가이사라의 유세비오의 버전이 고고학이나 고대 역사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시하는 버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구절에 제시된 바로 그 진리는 두 가지 버전 중 유세비오(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가 성경의 증언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할 수 있는 유일한 버전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제시된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믿지 않으며 경멸하는 진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의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25**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신학 박사들, 기타 유명한 성경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들 중 누구의 영향력도, 그들 모두의 영향력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금식과 기도로 열심히 공부한 후에 발견한 성경 진리의 진주를 마음에서 빼앗아 가십시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지침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선지자들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느니라” 요한복음 6:45

“성경은 어린이의 첫 번째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부모들은 현명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아름다운 교훈으로부터 그들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학부모,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조언 페이지. 108과 109.

우리는